

「양반전」 영역에서 결텍스트 전개에 관한 소고

권 병 철
(경동대)

1. 머리말

독자를 원천텍스트로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원천텍스트를 독자의 눈높이로 맞출 것인가는 번역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저울의 추와도 같다. 번역자는 베누티(Venuti 2008)의 표현대로 이국화(foreignization)와 자국화(domestication)의 저울로 텍스트를 달고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조율한다. 이 소고에서 필자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양반전」을 영역(英譯)하면서 원천텍스트에 충실한 번역을 고수하는 한편 목표텍스트 독자²⁾에게

원천텍스트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결텍스트를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기술하려 한다.

김영동(1993: 385)에 따르면 「양반전」은 연암이 20대 후반(1764)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필자는 「양반전」 영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표텍스트 독자 또한 대략 250년의 세월을 건너 필자가 번역한 「양반전」을 읽고 우리가 「양반전」 한문 원전이나 국역 「양반전」을 읽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문학적 감흥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영역 「양반전」이 수용될 영어권 세계는 영어라는 언어 구조를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름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양반전」은 문화 특정적 요소가 많아 적합한 영어 등치 표현을 찾아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자의 역할은 원천텍스트와 원천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정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연암이 「양반전」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세계를 목표텍스트 독자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필수 배경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해설하는 작업에 가깝다. 그리고 번역자의 원천텍스트에 대한 해설과 정보 전달은 바로 결텍스트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양반전」을 영역하면서 「양반전」의 결텍스트라 할 수 있는 「방경각외전(放穡閣外傳)」 자서(自序)를 영어로 옮겨 본 텍스트 바로 앞에 전개한다. 여기에 번역자의 서문과 「양반전」 이해의 키워드로 설정한 ‘양반’에 관한 주석을 번역자 결텍스트로 덧붙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양반전」 영역본을 둘러싼 서문 형식의 결텍스트와 본 텍스트 내의 주석으로 배치한 결텍스트 번역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이어서 결텍스트 번역과정 기술에 기초하여 번역자의 결텍스트 전개 전략을 고찰하고 번역 과정을 회고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1) 2012년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영역한 「양반전」을 다시 보면서 결텍스트를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영역의 원전은 신호열·김명호가 옮긴 『연암집 (하)』와 한문 원전을 동시에 참고하였다. 2020년 보완한 영역본 전문은 다음 URL에서 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samsara69/222152951745>

2) 필자가 염두에 둔 영역 「양반전」의 독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및 언어에 관심이 있으며 또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영어를 모국어 혹은 주요 의사소

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독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필자가 겨냥하는 영역 「양반전」이라는 화살이 적중해야 할 과녁 중앙 붉은색 원형인 홍심(紅心)에 해당한다.

2. 「양반전」 결텍스트 번역

2.1 「양반전」 원전의 결텍스트

문학작품은 대부분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지은이의 이름, 작품의 제목, 서문이나 삽화 등과 같은 언어적·비언어적 형식의 저작물이 여기에 곁들여져 문학작품의 본 텍스트를 꾸미고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본 텍스트 이외의 별도의 저작물이 본 텍스트를 둘러싸고 본 텍스트의 연장선에 이어져 있으면서 본 텍스트 즉 문학작품이 책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뒷받침한다. 주네트(Genette 1987; 지영래, 박선희 2010에서 재인용)는 이러한 기능의 본 텍스트에 동반하는 다양한 양식의 저작물을 결텍스트라고 칭한다.

「양반전」 한문원전의 결텍스트는 「양반전」이 포함되어 묶여 있는 「방경각외전」의 자서가 유일하다. 자서에서 연암은 현전하는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광문자전」, 「양반전」, 「김신선전」, 「광문자전」, 「우상전」과 소실된 「역학대도전」, 「봉산학자전」의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물론 모든 독자가 자서에서 연암이 밝힌 창작 동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서를 읽고 창작 동기를 알고 본 텍스트를 읽은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는 분명 원전 이해와 수용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암 또한 이점을 알고 있었기에 「방경각외전」 자서를 지었울 것이다.

연암은 「방경각외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서 형식의 결텍스트 뿐만 아니라 「호절」에서처럼 본 텍스트 바로 뒤에 평결을 추가하거나 「광문자전」에서는 본 텍스트의 후기라 할 수 있는 서광문전후(書廣文傳後)를 덧붙인다. 이렇게 본 텍스트 전후로 덧붙이는 도입부와 후일담 또는 평결 형식의 결텍스트는 독자가 해당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더욱 충실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길 바라는 글쓴이의 의도가 숨어있다. 「양반전」에 관한 「방경각외전」 자서를 보면 마치 저자 연암과의 인터뷰에서 「양반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묻는 북클럽 진행자의 질문에 연암이 간략하게 답하고 있는 것과 같다.

2.2. 원저자 서문 번역

「양반전」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양인 출신의 부자가 몰락한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고파는 세태를 고발하고 동시에 허례허식에 빠져 횡포를 일삼는 양반을 풍자한다. 연암은 「양반전」을 쓰는 이유를 「방경각외전」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士迺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酷嚮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

선비란 바로 천작天爵이요
선비의 마음이 곧 뜻이라네
그 뜻은 어떠한가
권세와 잇속을 멀리하여
영달해도 선비 본색 안 떠나고
곤궁해도 선비 본색 잃지 않네
이름 절개 닦지 않고
가문家門 지체地體 기화 삼아
조상의 덕만을 판다면
장사치와 뭐가 다르랴
이에 「양반전 兩班傳」을 짓는다.

자서에서 드러난 연암의 창작 동기를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 내가 보니 양반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권세와 잇속을 쫓는 데 급급하고 영달과 곤궁 앞에 올바른 선비의 본색은 간데없더라. 대쪽 같은 기상과 기개는 멀리한 채 그저 가문과 조상을 팔아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더라. 이런 양반들은 한마디로 장사치와 뭐가 다를까. 나는 이를 비판하고자 양반 이야기를 짓는다.”

자서는 비교적 짧지만 본 텍스트 이해의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서문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글쓴이의 창작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더불어 연암이 염두에 둔 독자는 양반 계층이며 그 독자가 왜 「양반전」을 읽어야 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 핵심어 ‘양반’에 대한 정의 혹은 논평을 들을 수 있고 마지막에 작품의 장르를 소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연암은 독자가 「양반전」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길 바라면서 45자의 서문을 한 자 한 자 고민하면서 지었을 것이다. 번역자는 목표텍스트 독자 또한 자서에 심어놓은 연암의 의도를 따라 원전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영어로 옮긴다.

Prologue to *The Tale of Yangban*

Scholar class has an innate dignity. Scholar's mind makes his will. Then what is the great will of the scholar? Detach oneself from the lust for power and earthly interests. Stick to the real self regardless of the prosperity he enjoys.

Although in dire poverty, he never forgets his real self and duty as a scholar. Without devoting himself to honor and integrity but only selling his ancestors' merits and virtue, Then, how can we tell the mean merchant and the real scholar?

Thus, I write *The Tale of Yangban*.

2.3. 역자 서문 배치

어떤 문학작품도 진공상태나 무균의 실험실에서 나올 수는 없다. 모든 문학작품은 결국 시대적 조건과 제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Lefevre 1992: 10). 가령 「양반전」은 18세기 조선의 이데올로기, 사회문화적인 조건, 시학적인 특성, 언어적인 특성을 빚겨 갈 수 없다. 어떤 문학 작품의 저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해당 저자의 작품 해석과 이해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듯 저자 연암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은 물론이고 「양반전」을 바치고 있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양반전」을 제대로 읽는 데 필수 배경 정보이다.

연암의 문인으로서의 생애와 그의 집안에 대한 설명, 복학과 당시의 정부가 청나라의 실용적이고 앞서가는 기술과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한 그의 주장과 제조업과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중상주의자였다는 점 등은 「양반전」 이해의 결정적인 지식 기반이다. 목표텍스트 독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연결하기 위해

필자는 연암의 약력과 문학과 사유 세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서문(*A brief introduction to the writer of The Tale of Yangban, Park Jiwon*)을 역자 결텍스트로 전개한다. 역자 서문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Park Jiwon (1737-1805) was a pragmatist, a scholar, and a writer of the late *Joseon* Kingdom. He was born in *Bansongbang Yadong*, the western district of Seoul in 1737. His family was originally from *Bannam*, and his literary name is *Yeonam*. He was a leader of Practical Studies(*Silhak*) along with other distinguished scholars such as Hong Daeyong and Park Jaega. These leading scholars contended that their government should adopt the advanced and practical technology and institutions from Qing China. They also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business and trade.”

박지원(1737-1805)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문장가이다. 1737년 서울 서쪽 야동 반송방 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필명은 연암이다. 그는 저명한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실학의 거두였다. 실학을 이끌었던 이들은 당시 조정이 청나라로부터 실용적이고 앞선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중상주의자들로 제조업과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번역은 필자)

다음으로 부를 축적한 중인계급의 등장과 일부 양반 계층의 몰락으로 인한 신분 질서의 붕괴와 실학과 중상주의 등의 당대의 시대 흐름에 대한 이해 역시 「양반전」 이해의 필수적인 배경이다. 이를 담은 두 번째 역자 서문(*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ale of Yangban*)을 본텍스트 가장 바깥쪽에 전개한다.

“*The Tale of Yangban*, a magnum opus of the short stories of Park Jiw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llapse of the established social class distinctions in the late *Joseon* Kingdom.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agricultural technology such as the transplanted rice and planting seeds in a furrow, agricultural production doubled. Along with this,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nd industry gave birth to a new social class like the capitalist farmers and the merchants. Their accumulation of capital allowed them to aspire to move to a higher social class. “What

was developing, in western terms, was a laissez-faire capitalist economy, and what happened in the early stages of its development was a familiar phenomenon to economic historians: the rich got richer and the poor got poorer; thus, the traditional class structure of society was disrupted and confused.”

박지원 한문 소설의 백미인 「양반전」은 조선 후기의 양반 신분의 붕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시 이양법과 같은 선진 농법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량은 배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수공업 생산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부를 축적한 부농과 경영 형 상인과 같은 새로운 신분 계층이 탄생하게 된다. 이들은 모든 부를 활용하여 더 높은 신분 상승을 열망하게 된다. 서구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그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사학자들에게는 익숙한 현상이 일어난다. 즉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 계급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혼란이 야기된다. (번역은 필자)

3. 「양반전」의 키워드 ‘양반’의 주석

「양반전」은 양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라 할 정도로 당대 모든 부류의 양반(사, 대부, 군자, 동반, 서반 등)의 면면을 열거하고 양반사회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면, 존경받는 선비였다가 관청의 군량미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찰사의 눈에는 군량미를 축낸 놈이 되고 그의 아내가 본 양반은 ‘한 푼 값어치도 안되는 무능한 남편’이 된다. 허영에 가득 차 손에 돈을 쥐지도 않고 쌀값도 묻지 않는 등의 실속 없는 양반, 알량한 신분을 이용한 파렴치한 횡포를 부리는 도둑 같은 양반도 등장한다.

연암은 「양반전」 서사구조의 두 가닥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건에서 당시 조선의 지도층인 양반 사대부의 시대착오적인 허례허식을 두 번째 문건에서는 부조리한 특권 의식과 파렴치한 무단행세를 사실적으로 그린다. 연암이 설정한 두 개의 거울(문건) 속에 비친 양반의 실상을 보면서 양반 사대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올바른 양반의 의미와 본령에 대해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양반전」의 풍자적 반어가 지향하는 주제는 양반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이나 양반층의 위선과 비리 따위를 비난하며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양반계급의 본질에 대한 물음, 양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다(정확성 2017:198). 이것이 목표텍스트 독자가 「양반전」을 올바르게 읽고 수용하는 데 있어 양반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은 물론 「양반전」이 나올 수 있었던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조건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필자는 본 텍스트 전반에 걸쳐 양반에 관한 조각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덧붙여 목표텍스트 독자가 양반에 관한 일련의 정보 퍼즐을 거쳐 양반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특권 계층으로서의 양반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몰락한 양반들이 속출한다.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양인들이 여러 경로로 양반의 지위를 얻으면서 반상의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돈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점점 쇠락해가는 양반의 특권이라도 손에 넣으려는 양인들과 돈이 행세하는 세상에 비루하고 궁색한 모습의 양반들의 모습이 중첩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양반의 어원적인 설명과 신분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양반이 가난하여 환자를 갖지 못해 양반을 지키지 못할 지경으로 부자가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 보겠다고 하는 대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석을 덧붙였다.

其勢誠不能保其兩班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 못할 형편이다.

and certainly it will be difficult for him to keep up his yangban status.

주석: “Yangban literally means “two branches” of administration: munban (문반, 文班) which comprises civil administrators and muban (무반, 武班) which comprises martial office holders. The term yangban first appeared sometime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but gained wider usage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from the sixteenth century onward yangban increasingly came to denote local wealthy families who were mostly believed to be the descendants of once high-ranking officials. As more of the population aspired to become yangban and gradually succeeded in doing so in the late Joseon period by purchasing the yangban status, the

privileges and splendor the term had inspired slowly vanished. It even gained a diminutive connotation.”

(Source: <https://en.wikipedia.org/wiki/Yangban>)

양반의 문자적 의미는 관료조직의 두 가지 계열을 가리킨다. 즉 행정 업무를 맡은 문반과 국방의 임무를 맡은 무반을 뜻한다. 양반이라는 용어는 최초 고려 후기에 가끔 등장했지만, 조선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를 기점으로 양반은 대부분 한때 사대부 집안의 후손들로 여기는 지방의 부유층을 가리키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양반이 되길 열망했고 조선 후기에 와서 양반의 지위를 사서 실제로 많은 양인이 양반이 되면서 양반이 누렸던 특권과 영화는 점점 퇴색되어 심지어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추락하게 된다. (번역은 필자의 것)

또한 양반의 특권과 쇠락의 과정을 확대하여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석을 배치한다.

里之富人。乃兩班也。

이 마을의 부자가 이제는 양반입니다.

it is the rich man of this town who is the yangban now.

주석: Yangban was not an impenetrable class. By the time of late Joseon, money could buy the status of Yangban through a variety of official and unauthorized channels such as an honorary Yangban cer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donation of money and grain, paying bribes to a government official, or purchasing a highborn pedigree to enjoy the coveted privileges of Yangban. It was a transaction between desperate Yangbans and rich commoners.

양반이 범접할 수 없는 계급은 아니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심지어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살 수도 있었다. 양인이 양반으로 계층 이동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양반이 누렸던 혜택을 즐기기 위해 양반이 되려 했다. 예를 들면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관가에 뇌물을 바쳐 양반이 되기도 하고, 유명한 가문의 족보를 사들이거나 거짓으로 꾸며 양반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절박한 양반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양인 사이의 상호

필요에 의한 거래였다. (번역은 필자의 것)

양반의 특권을 다소 과장되게 열거하는 두 번째 문건에 해당하는 아래 대목에서는 양반이라는 계급을 유지하는 토대라 할 수 있는 과거제도에 관한 해설 자료를 주석으로 추가하여 양반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하려 했다.

稱以兩班 利莫大矣

양반으로 불리면 이익이 막대하다.

We call him 'yangban, and he has huge merits.

주석: In theory,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not a monopoly of Yangban, even though it was closed to artisans, merchants, *Mu-tang*, sorcerers, buddhist monks, servants, offsprings of Yangban and his concubine. Institutionally and legally, the status of commoners was equal to the yangban but in reality it was not a viable option for the commoners to apply for the civil examination let alone pass the examination.

이론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은 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庶孽)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즉 과거 응시 조건과 관련하여 중인의 법적 제도적 지위는 양반과 같았다. 하지만 중인이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더군다나 합격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번역은 필자의 것)

마지막으로 연암이 당대 양반들의 특권과 횡포를 열거하여 양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두 번째 문건 뒤에 저자의 비판의식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해설 자료를 추가한다.

終身不復言兩班之事

종신토록 다시 양반의 일을 입에 내지 않았다.

he never mentioned the affairs of yangban for the rest of his life.

주석: “Yonam directs his sharpest barbs at his own class. He believes the yangban scholar-officials have brought the country to its present moral, political, and economic bankruptcy through their own hypocrisy, parasitic lifestyle, and head-in-the-sand attitude. In his satirical sketch “Yangban chon” (The Story of a Yangban), Yonam characterizes a yangban as a good-for-nothing who is incapable of earning his own livelihood.” (Kim 1996: 177)

연암의 예리한 비판의 칼날은 바로 자신이 속한 신분을 겨눈다. 그는 양반 사대부들의 위선과 기식하는 삶의 방식과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당대의 도덕, 정치,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린 「양반전」에서 연암은 양반을 제 앞가림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물로 그린다. (번역은 필자의 것)

4. 양반전 번역에서 결텍스트 전개

원천텍스트 저자 서문은 연암 자신의 작품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독자들이 왜 읽어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번역자가 전개한 서문은 목표텍스트 독자가 원전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일종의 수속 절차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서 역자가 판단하기에 목표텍스트 독자가 원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할 사전 정보와 지식을 역자 서문이라는 결텍스트로 제공한다. 각각의 기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저자 서문은 결텍스트이긴 하지만 본 텍스트로 분기 연결되어 본 텍스트를 조정하고 바꾸는 역할에 가깝다. 반면 역자 서문은 본 텍스트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원전 내용에 관한 해설 또는 논평에 집중한다. 즉 원전의 주제, 저자와 작품에 관한 맥락정보, 창작 동기 및 의도에 관한 사전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텍스트 독자는 원전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양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한 주석은 양반에 대한 설명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양반이라는 객관적 실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디딤돌을 건너 원작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주석 내용의 주를 이루는 역사적 정보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

하기 위해 대부분 검증된 2차 자료를 제시하고 각각의 출처를 밝혔다.

번역자가 별도의 서문을 전개한 것은 독자들이 「양반전」이라는 숲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입 수속(in-processing)을 거치게 하는 전략이었다. 동시에 양반에 관한 별도의 주석 제공은 독자가 예비 수속의 과정을 거치고 숲에 들어간 다음 곳곳에 이정표를 배치하여 이를 따라 숲이 주는 즐거움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5. 맺음말

「양반전」과 같은 고전문학 작품을 장구한 시간의 강을 건너 낯선 언어와 문화권으로 옮기는 작업에서 적합한 목표텍스트 대응표현을 찾아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언어구조와 문화적 토대가 다른 목표텍스트 독자의 눈에 「양반전」 원전은 해독해야 할 일종의 암호처럼 비칠 수도 있다. 설정한 목표텍스트 독자가 아무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더라도 18세기 양반의 초상을 연암 특유의 화법으로 직조해 놓은 암호를 해체하고 그가 진정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읽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양반전」 영역 과정에서 목표텍스트 독자와 연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를 놓아 목표텍스트 독자가 연암과 그의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자 또는 해설자의 역할에 번역의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자의 중재자 또는 해설자의 역할을 결텍스트 전개로 구현할 수 있었다.

원저자의 결텍스트를 옮기면서 독자가 원전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열쇠가 될 정보 예를 들면 연암의 창작 의도, 이야기의 주제와 주제인 양반에 대한 논평, 작품의 장르 등을 최대한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했다. 역자 서문에서는 목표텍스트 독자가 원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해설자료를 제공하여 본 텍스트로 순조롭게 들어가도록 수속 지원을 충실히 구현하려고 했다. 이와 연계하여 「양반전」 이해의 키워드 '양반'에 대한 주석 자료를 텍스트 전반에 제공하여 최종 이러한 정보 퍼즐이 수렴되면서 핵심어 양반 이해는 물론 「양반전」 전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본 틀을 갖출 수 있게 했다. 결국 영역 「양반전」 결

텍스트 전개는 목표텍스트 독자의 더욱 충실하고 올바른 원전 읽기와 이해를 위한 사전 수속 전략과 동시에 원저자 혹은 역자가 의도하는 목적지로 독자를 서서히 움직여 데려가는 유도 전략의 산물이다.

참고문헌

- 김영동 (1993) 『증보 박지원소설연구, 서울: 태학사.
- 신호열, 김명호 옮김 (2007) 『연암집(하)』, 서울: 돌베개.
- 정학성 (2017) 「<호질>과 <양반전>의 우언과 풍자 대한 토론」, 『동양고전연구』 69: 179-204.
- 오윤선 (2014) 「2000년 이후 출간 한국고소설 영역본의 양상」, 『고소설연구』 38: 462-493.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Genette, Gerard (198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 Woo-Keun (1970) *The History of Korea*. tr. Kyung-shik Lee, Seoul: The Eul-yoo Publishing Company.
- Kim, Kichung (1996)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Hyangga to P'ansori*, New York: An East Gate Book.
- Lefevere, Andre (1992) *Translating Literature: Practice and Theory in a Comparative Literature Context*,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Munday, Jerem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Venuti, Lawrence (2008)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Wikipedia 온라인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Yangban> 2020년 3월 15일 검색.

[Abstract]

Strategic deployment of paratexts in the Translation of *Yangban Jeon*

Kwon, Byung-chul
(Kyungdong University)

This article describes the strategic deployment of the paratexts in my translation of *Yangban Jeon*. It sheds light on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preface of the original text, the translator's prefaces, and several other notes of the key word 'Yangban'. *Yangban Jeon* was originally written by *Park Ji-won* (1737-1805), a great champion of practical learning and an acclaimed wri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description of the translation process, I characterize the deployment of the prefaces as an in-processing of the target readers by which the target readers' faithful reading of the source text is maximized. Notes on *yangban* in particular are connected to the strategic zooming in on the information of the key word of the source text. Going through the translator's notes as a stepping stone to understanding the key word, the target readers are equipped with a proper knowledge of *yangban*.

To summarize, these translator's paratexts are meant to enhance the target reader's reading and appreciation of the source text to the fullest.

▶ Key Words: *Yangban*, paratext, preface, note

▶ 주제어: 고전 번역, 결텍스트, 서문, 주석

권병철

경동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부교수

backwonjae@gmail.com

관심분야: 고전문학 번역, 기술번역학(DTS)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4일